

헤로도토스의 역사서술과 그리스 신화

김 봉 철*

- I. 서론
- II. 그리스 신화의 유래에 대한 인식
- III. 그리스 신화의 서술사례
- IV. 결론

I. 서론

헤로도토스는 흔히 신화가 아닌 역사서술을 통해 인간사의 내력을 설명한 ‘최초의 역사가’로 평가받고 있다. 적어도 지중해세계에서는 그의 『역사』(*Historiai*)가 현존하는 최초의 역사서술이다. 그러나 그의 역사서술에는 우리가 신화라고 부르는 이야기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 때문에, 헤로도토스가 신화적 사고를 불식시키고 역사를 신화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는 식의 평가는 과장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¹⁾ 이처럼 헤로도토스는 그의 역사서술에서 한편으로 신화를 배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게 나타날 여지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헤로도토스가 언급한 신화들을 사례별로 고찰하여, 그

* 아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1) T. Harrison, *Divinity and History. The Religion of Herodotus*, Oxford, 2000, pp. 196-197.

의 역사서술과 신화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흔히 ‘신화’라고 번역되는 myth는 그리스어 미토스($\mu\acute{\iota}\theta\omicron\varsigma$)에서 유래한 말이며, 헤로도토스도 미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바 있다. 그리스에서 미토스는 호메로스 때부터 사용된 말이었는데, ‘이야기, 설화, 가공의 이야기, 전설, 우화’ 등의 뜻을 지니고 있었다. 처음에 미토스는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의 진위에 관계없이 그저 ‘이야기’를 의미하는 말이었다. 그러다 호메로스 이후에는 ‘가공의 이야기, 전설, 우화’를 의미하는 단어로도 사용되었다.²⁾ 헤로도토스도 ‘미토스’라는 용어를 두 번 사용한다. 그는 2.23에서 오케아노스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그 이야기를 ‘미토스’라고 부른다. 여기서 오케아노스 이야기는 ‘불명확한’($\acute{\alpha}\phi\alpha\nu\acute{\epsilon}\varsigma$) 것이고 논의할 여지도 없는 것으로 묘사된다. 헤로도토스는 일관되게 오케아노스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으며³⁾, 호메로스나 혹은 어떤 시인이 오케아노스라는 이름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처럼 오케아노스 이야기를 비현실적인 허구로 간주했는데, 그런 오케아노스 이야기를 ‘미토스’라고 표현한 것이다. 헤로도토스는 2.45에서 또 다시 ‘미토스’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는 여기서 이집트에서의 헤라클레스의 행적을 서술하면서, 그 이야기를 ‘미토스’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어리석은’($\epsilon\upsilon\eta\theta\eta\varsigma$) 이야기, ‘분별없는’($\acute{\alpha}\nu\epsilon\pi\iota\sigma\kappa\epsilon\pi\tau\omicron\varsigma$) 이야기로 묘사된다. 그는 그리스인들이 이집트 사정을 잘 모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비난할 정도이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전혀 신뢰하지 않는 이야기를 ‘미토스’라는 말로 표현했던 것이다. 이는 그가 미토스를 믿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간주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헤로도토스는 ‘신성한 로고스’($\iota\pi\acute{o}\varsigma\ \lambda\acute{o}\gamma\omicron\varsigma$)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는 주로 신들과 그들의 제식을 서술하면서 그 말을 사용한다. 그는 이집트의 ‘디오니소스’ 제식에 등장하는 한 인형의 모습이 왜 그러한

2) 편다로스 『올림피아송가』 1.29; 『네메아송가』 7.23; 플라톤, 『파이돈』 61B; 『프로타고라스』 320C, 324D; 『국가』 330D, 377A; 『법률』 636C.

3) 『역사』 2.23, 4.8, 4.36. 이후에 저자와 서명을 언급하지 않고 출처를 표기한 것은 모두 헤로도토스의 『역사』 대목임을 밝힌다.

지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 남근 달린 헤르메스상에 관한 이야기, 이집트의 한 제전에서 밤중에 등불을 켜고 제사지내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야기, 그리고 오르페우스 제의와 피타고라스 제의에 관한 이야기를 ‘신성한 이야기’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 표현은 ‘이야기, 전설’의 의미로서의 ‘로고스’ 중에서 그가 보기에 ‘신성한, 성스러운’ 것들에 대해 붙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는 신과 신성에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해 그냥 ‘로고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⁴⁾

본 논문은 헤로도토스가 사용한 ‘미토스’의 용례를 살피려는 것이 아니다. 그가 사용한 ‘미토스’ 혹은 ‘로고스’의 용례들 중에서도 신들의 이야기로서의 신화, 즉 ‘사건의 발생과 전개 과정에서 신들 혹은 반신(영웅)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이야기’의 용례를 통해 헤로도토스의 역사서술에서의 신화의 위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필자가 신들의 이야기, 특히 그리스 신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첫째로 헤로도토스가 서술한 허구적인 이야기나 설화들 중에서 그리스 신들과 반신적인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고, 둘째로 헤로도토스 이전부터 그리스의 신과 영웅들의 이야기가 많이 전하고 있어서 그것들을 헤로도토스의 서술과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헤로도토스의 신화서술을 규명하자면 유의할 점들이 있다. 먼저, 그의 신화서술이 그리스 신화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외국의 신화를 가리키는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헤로도토스는 외국의 신들과 제식을 서술하면서 외국 신들을 대체로 그리스 신들의 이름으로 부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역사』에 묘사된, 그리스 신과 영웅들의 이야기 중에서 그리스 신화에 해당하는 사례를 우선 판별한 후에, 그것들과 기존의 그리스 신화를 비교해야 할 것이다. 둘째, 헤로도토스의 신화서술이 그 자신의 개인적 견

4) ἱπρὸς λόγος(2.48, 2.51, 2.62, 2.81), λόγος(2.47, 2.65). 헤로도토스는 디오니소스와 셀레네에게 돼지 제물을 바치게 된 이유를 설명한 이집트인의 이야기와 동물을 신성시하는 이유를 밝힌 이집트인의 이야기를 λόγος라고 지칭한다.

해를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견해 표명 없이 단지 타인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에는 그 자신의 주관에 담긴 이야기와 그가 전하는 제3자의 이야기가 서로 혼재되어 있다. 그는 “내가 나의 모든 이야기에서 정해둔 원칙은, 나는 각 사람들이 말한 것을 들은 그대로 적는다는 것이다.”, “나는 내가 전해 들었던 것만 그대로 기술할 뿐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한다.⁵⁾ 따라서 그리스 신화에 대한 헤로도토스 자신의 관념을 도출하자면 그 점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필자는 그의 신화서술 중에서 그리스 신화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추출하고 그 이야기의 화자(話者)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기로 한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서술과 신화를 연관시킨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헤로도토스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그의 역사서술과 역사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고 문학이나 민속학적 측면 등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졌다. 신화는 그에 대한 중심적인 연구주제가 아니었다. 그가 자신의 저술에서 신화를 거론한 이유는 역사서술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었지 신화 자체를 독립된 주제로 중시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 중에도 A. E. Wardman, “Myth in Greek Historiography”(Historia 9(1960), pp. 403-413), S. Scullion, “Herodotus and Greek Religion”(C. Dewald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Herodotus*, Cambridge, 2006, pp. 192-208)와 T. Harrison, *Divinity and History. The Religion of Herodotus*(Oxford, 2000)가 대표적인 연구라 할만하다.⁶⁾

본 논문은 헤로도토스의 역사서술에서 신화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사례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그리스 신화의 유래에 대한 헤로도토스의 인식을 고찰할 것인데, 이를 통해 그의 신화인식을 살펴보려

5) 2.123, 2.130.

6) 워드만(Wardman)은 헤로도토스의 ‘미토스’ 용례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고 해리슨(Harrison)의 저술은 헤로도토스와 종교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 종합서라 할 수 있다.

한다. 3장에서는 그의 신화서술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점검할 것이다. 이때 그의 그리스 신화에 대한 태도에 따라 I유형(그리스 신화를 부정하는 경우), II유형(신화를 수정하여 수용하는 경우), III유형(개인적인 견해 표명 없이 신화내용을 소개하는 경우)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그로써 신화가 그의 역사서술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II. 그리스 신화의 유래에 대한 인식

헤로도토스는 그의 역사서술에서 신들에 관한 언급을 가급적 자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는 이집트인들로부터 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후 “내가 들은 이야기 가운데 신들에 관한 것은 단지 그들의 이름 외에는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신들에 관해 똑같은 정도로 알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앞으로 내가 신들에 관해 언급한다면, 이야기의 진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그럴 것이다.”(2.3)라고 공언했으며, 또 동물들을 신성시하는 이집트인들의 관행을 서술하면서 “만약 내가 그 동물들이 신성한 것으로 봉헌된 이유에 관해 말한다면 신에 관련된 일들을 이야기하게 될 텐데, 이는 내가 이야기하기를 가장 꺼리는 것들이다. 나는 이제껏 이런 일에 관해서는 약간밖에 언급하지 않았으며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말했을 뿐이다.”(2.65)라고 밝혔다.⁷⁾ 실제로 헤로도토스는 자신이 신들과 제식에 관해 알고 있는 ‘신성한 이야기’를 굳이 설명하지 않는다. 그는 디오니소스 제의행렬에 나오는 인형의 모습, 남근 달린 헤르메스상, 이집트 사이스의 등불제전, 그리고 이집트인들 및 그리스인들의 모직외투 기피관행에 관한 ‘신성한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내용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했던 것이다.⁸⁾

7) 이외에도 헤로도토스는 『역사』 2.45, 2.46, 2.47, 2.61, 2.86, 2.132, 2.170, 2.171, 9.65에서 자신이 신들에 대한 언급을 꺼리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8) 2.48, 2.51, 2.62, 2.81.

그러면 그는 왜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하지 않으려 했는가? 그는 『역사』 2.3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미 자신처럼 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자신이 알아낸, 신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것이어서 자신이 굳이 그것을 서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외의 다른 대목들을 보면, 헤로도토스가 신에 대한 불경을 우려하여 그러한 서술을 자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이집트인의 제식과 종교적 관행을 설명하면서, 그와 관련된 신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경건한(ῥοιος) 일이 아니라고 하며 그 이름을 절대 밝히지 않는다.⁹⁾ 그리고 그리스인의 테스모포리아 제전에 대해서도 “경건함을 잃지 않는 한도까지만 이야기하고 그 이상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겠다.”(2.171)고 단호한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그는 헤라클레스의 모험 이야기를 일부 서술한 후, “이 문제들에 관해 이 같은 이야기를 한 우리에게 부디 신과 영웅들께서 호의를 베푸시길 바라마지 않는다.”(2.45)고 용서를 구할 정도였다.

하지만 헤로도토스가 그리스의 신화와 제식에 대해 일절 함구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올림포스 신들을 위시한, 그리스의 많은 신들의 계보와 신성(神性)을 서술하고 그들에 대한 제식과 일화를 설명할뿐더러 반신적인 영웅들의 행적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한다. 또한 그는 이집트, 페르시아, 바빌론, 스키타이, 트라키아 등의 이국적인 신화와 제식을 그리스와 관련지어 소개함으로써,¹⁰⁾ 동부 지중해세계의 종교에 대한 비교사적(比較史的)인 접근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리스의 신앙과 신화의 유래에 대한 헤로도토스의 견해는 『역사』 2.50

9) 2.61, 2.86, 2.170. cf. 2.40.

10) 예컨대 이집트인들의 종교는 주로 『역사』 2.37-48, 58-64, 83, 144-145, 155-156, 169-171, 3.27-29에 묘사되어 있고, 페르시아인들의 종교는 1.131-132, 138, 바빌론의 종교는 1.181-183, 199, 스키타이인들의 종교는 4.59-63, 트라키아인의 종교는 5.7, 7.111에 서술되어 있다.

-53에 잘 나타나 있다.

(2.50) 거의 모든 신들의 이름(τὰ οὐνόματα) 역시 이집트에서 그리스로 들어온 것이다. 나는 탐문(探問)을 통해 그 신들의 이름이 이방인에게서 유래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것들이 주로 이집트에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 이집트인들은 내가 앞서 언급했던 대로 포세이돈과 디오스쿠로이, 그리고 헤라, 히스티아, 테미스, 카리테스, 네레이데스를 제외한 다른 모든 신들의 이름을 자신들의 나라에서 이전부터 죽 지니고 있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집트인들 자신이 이야기한 내용이다. 내 생각에는, 그들이 이름을 모른다고 말한 신들은 포세이돈을 제외하고는 다 펠라스기아인들이 명명했다고 본다. 그리스인들은 이 포세이돈 신에 대해 리비아인들로부터 배웠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리비아인들만이 원래부터 포세이돈의 이름을 지니고 있었고 이전부터 죽 그 신을 숭배하고 있다. 한편 이집트인들은 영웅들에 대해서는 전혀 숭배하지 않는다.

(2.52) 내가 도도나에서 들어서 아는 바로는, 예전에 펠라스기아인들은 신들에게 온갖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했으며 어떤 신에 대해서도 그 별명이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들은 아직 그러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펠라스기아인들은 이들을 테오이(Θεοί)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모든 사물을 질서 있게 배치하고 만물을 적재적소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펠라스기아인들은 이집트로부터 전래한 여타 신들의 이름을 들어 알게 되었고, 그 한참 뒤에 디오니소스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그런 후에 그들은 도도나에서 신들의 이름에 대해 신탁을 구했다. 이 신탁소는 그리스에 있는 신탁소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리스에서 유일한 신탁소였던 것이다. 펠라스기아인들이 이방인들로부터 전래한 이름을 채택해도 되는지에 대해 도도나에서 신탁을 문의하자, 그것을 사용하라는 신탁이 내려졌다. 그때 이후 그들은 신들의 이름을 사용하며 제사를 지냈다. 그리

스인들은 나중에 이것을 펠라스기아인들로부터 받아들였다.

(2.53)그리스인들은 각 신들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혹은 그들 모두가 처음부터 즉 존재했는지, 또 그들이 어떤 모습을 지녔는지에 대해 말하자면 엇그제까지만 해도 모르고 있었다. 내 생각에는 헤시오도스와 호메로스가 나이로 볼 때 나보다 400년 앞서 존재했으며 그보다 더 오래되지는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바로 이들이 그리스인들을 위해 신의 계보를 만들고 신들에게 별명을 부여했으며 또 각 신들에게 영예와 기술을 부여하고 그들의 형상을 표현했던 자들이다. 헤시오도스와 호메로스보다 이전에 존재했다는 시인들은, 내 생각에는, 그들보다 후대에 생겨난 자들이다. 위의 이야기 가운데 처음 부분은 도도나의 여사제들이 말해준 것이고, 헤시오도스와 호메로스에 대한 나중의 부분은 내가 말한 것이다.

헤로도토스의 서술에 의하면, 그리스의 선주민인 펠라스기아인들이 이집트로부터 신들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중에 그리스인이 펠라스기아인들로부터 받아들였으니, 그리스 신들의 이름은 이집트에서 유래한 것이 된다. 여기서 헤로도토스는 그리스인들이 받아들인 것은 이집트 신들의 ‘이름’(τὸ ὄνομα)임을 반복해서 서술한다. 그 이전에는 그리스인들이 신들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부르지 않고 모든 신들을 다함께 ‘테오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인이 이집트 신들의 ‘이름’을 받아들였다는 언급은 다른 대목들에서도 확인된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집트인들이 12명의 신들의 명칭(ἑπωνυμίας)을 최초로 사용했고 그리스인들은 이들로부터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한다.”(2.4), “사실 나로서는 헤라클레스라는 이름을 이집트인이 그리스인들로부터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인이 이집트인들로부터 받아들였다는 것..을 증명할 ... 증거들을 갖고 있다.”(2.43), “그리스인들에게 디오니소스의 이름과 제사, 남근상 행렬을 가르쳐 준 자가 바로 멜람푸스이기 때문이다. ... 디오니소

스에 대해 남근상을 운반하는 행렬의식을 처음 제정한 자가 바로 멜람푸스이고, 그리스인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의식은 그에게서 배운 것이었다. 나는 멜람푸스가 그 스스로 예언술을 습득하고 또 이집트로부터 다른 많은 것들과 또한 디오니소스에 관한 제식을 배워 그것들을 … 그리스인들에게 도입했던 것으로 보아”(2.49) 등의 대목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그리스인이 외국 신들의 ‘이름’을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여기서 관건은 신들의 이름을 신과 동일시할 수 있는가이다. 헤로도토스의 설명에 의하면, 그리스인들이 이미 집단적인 의미의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개별적인 신들의 이름이 나중에 이집트에서 들어왔다고 한다. 그러면 그 이름들은 개별화된 신들에게 부여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이름과 더불어 그 신의 일부 속성이 들어왔을 수는 있지만 그 신 자체가 도입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¹¹⁾ 더욱이 그의 말대로 헤시오도스와 호메로스가 그리스 신들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만든 것이라면, 이집트 신화가 그리스에 도입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만일 그 이집트 신들에 관한 신화가 그리스에 전래되었다면, 헤시오도스와 호메로스가 굳이 그리스 신화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도토스는 그리스인들이 헤시오도스와 호메로스 이전에는 개별적인 신들, 즉 이집트에서 이름이 유입된 신들에 대해 그 유래와 계보, 형상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헤로도토스는 그리스 신화가 두 개의 변천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고 본다.¹²⁾ 첫 번째 과정에서는 이집트 신들의 이름이 그리스에 유입된 결과,

11) 헤로도토스가 말하는 신들의 ‘이름’이 단순한 이름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신에 대한 관념을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I. M. Linforth, “Greek Gods and Foreign Gods in Herodotus”, *Univ. of California Pub. in Class. Phil.*, 9(1926), pp. 1-25; “Greek and Egyptian Gods(Herodotus II.50 and 52)”, *Classical Philology* 35.3(1940), pp. 300-301; R. Lattimore, “Herodotus and the Names of Egyptian Gods”, *Classical Philology* 34.4(1939), pp. 357-365를 참조.

12) Cf.D. Asheri 외, *A Commentary on Herodotus Books I-IV*, Oxford, 2007, p. 274.

종래에 집단화되어 있던 신들이 개별적인 이름을 갖게 되고, 두 번째 과정에서는 헤시오도스와 호메로스가 그 신들에 대한 신화를 구체적으로 창시했다는 것이다. 헤시오도스와 호메로스 이전의 그리스인들은 “각 신들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혹은 그들 모두가 처음부터 즉 존재했는지, 또 그들이 어떤 모습을 지녔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는 신들의 유래와 계보, 별명, 명예와 기술, 형상에 관한 이야기를 만든 자들이다. 그렇다면 헤로도토스는 그리스 신화가 그의 시대로부터 400년 정도의 이전(以前) 시기에야 처음으로 창안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에게 신화는 만들어진 것이었다. 더욱이 호메로스가 만든 그리스 신화는 그리스인들이 그 이름을 받아들였다는 이집트 신들의 신화와는 다른 별도의 작품이었다. 그러므로 헤로도토스로서는 헤시오도스와 호메로스가 묘사한 그리스 신화를 현실과 무관한 가상의 이야기로 인식했다고 할 수 있다. 헤로도토스는 또 『역사』 2.23에서도 호메로스의 신화 창작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는 오케아노스에 관해 언급하면서 “호메로스나 혹은 그보다 이전 시기의 시인들 중 누군가가 그 말을 만들어내어 자신의 시(詩) 속에 끼워 넣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는 것이다. 4.8에서도 오케아노스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 그는 폰토스의 그리스인들이 오케아노스와 관련하여 전하는 이야기를 소개한 후, “오케아노스에 대해서는 그것이 해 뜨는 지역에서 시작하여 모든 육지를 맴돌아 흐른다고 말들은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지는 입증되지 않고 않다.”고 밝히고 있다.

헤로도토스는 호메로스의 신화서술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간주했던 만큼 당연히 그의 서사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헤로도토스는 신화 일반과 오케아노스에 대한 호메로스의 서술을 가공의 이야기로 치부했을 뿐 아니라 호메로스 서사시의 주된 소재인 헬레나 이야기도 진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헬레나가 알렉산드로스와 함께 트로이로 가던 중에 표류되어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는데도 호메로스가

일부러 자신의 작품구성을 위해 헬레나가 트로이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한다.¹³⁾ 한편 헤로도토스는, 호메로스 외에는, 그리스 신화를 다룬 시인들의 작품을 전연 언급하지 않는다.¹⁴⁾

Ⅲ. 그리스 신화의 서술사례

헤로도토스는 그리스 신화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의 『역사』에는 다수의 그리스 신들과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제우스(75회 언급), 포세이돈(18회), 아폴론(32회), 아테나(36회), 디오니소스(34회), 데메테르(23회), 아프로디테(13회), 판(14회), 헤라클레스(45회), 페르세우스(17회) 등을 언급하고, 또 그리스 신화상 특출한 인간들인 카드모스(6회 언급), 에우로파(4회), 미노스(9회), 이오(6회), 헬레나(27회), 다나오스(5회) 등에 관해서도 거론한다.¹⁵⁾ 그런데 헤로도토스의 신화서술은 신화 그 자체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역사서술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단편적으로 제시된 것들이다. 그는 『역사』에서 전반적인 그리스 신화를 체계 있게 서술한 것이 아니라 일부 신들과 영웅들의 일화를 드문드문 묘사했던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큰 의미 없이 거론되는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신화묘사는 배제하며, 해당 신화의 전체 구도와 연관되고 비교적 이야기 구도가 갖추어진, 유의미한 서술사례들을 추출하여 논의할 것이다. 이는 헤로도토스 이전의 신화서술사례들과 비교하여 헤로도토스의 신화인식 및 신화서술상의 위상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헤로도토스의 신화서술에는 그리스 신화와 다른 지역

13) 2.116.

14) 헤시오도스의 이름이 4.32에서 지나치듯 언급되는데, 그것은 신화와 관계없는 내용이다.

15) 각 이름의 괄호 속 숫자는 그들이 『역사』에서 언급된 횟수를 가리키는데, 이는 J. E. Powell, *A Lexicon to Herodotus*, 2판(London, 1938)에 의거한 것이다. 이 횟수에는 그리스인들의 사례뿐 아니라 그리스 이외 외국 사례들도 포함된 것임을 밝힌다.

의 신화들이 혼재되어 있다. 즉 그리스 신과 영웅의 이름으로 서술되지만 사실 다른 지역의 신화를 의미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리스 신화에 해당되는 유의미한 서술사례들을 다음과 같이 추출했다. 제우스의 경우에는 이오 이야기(1.1-2, 1.5, 2.41), 에우로파 이야기(1.2, 1.173, 4.45), 포세이돈과 아테나의 경우에는 아테네 수호신이 되기 위한 경쟁 일화(8.55), 디오니소스의 경우에는 탄생과 양육 일화(2.145-146)가 서술되어 있다. 한편 헤로도토스는 신과 관련된 개인이나 신적인 영웅들 가운데 헤라클레스와 헬레나, 카드모스의 일화를 언급한다. 헤라클레스 이야기는 그의 계보(2.43-44, 2.145-146, 6.53)와 이집트에서의 기행(奇行. 2.45)이 서술되고 헬레나 이야기는 트로이전쟁과 그녀의 행방 이야기(2.112-113, 2.115-120), 카드모스 이야기는 에우로파를 찾기 위한 항해(2.44, 4.147)와 보이오티아 정착(2.49, 5.57-59) 일화가 언급된다.

이상에서 추출된 9개의 신화서술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가 그리스 신화에 대해 다양한 태도를 보였음이 나타난다. 그는 신화에 대해 아예 부정하기도 하고 때론 그것을 수정하여 수용하기도 한다. 또 때로는 자신의 견해를 가부간에 표명하지 않고 단지 타인의 이야기를 소개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9개 추출사례를 위의 3가지 범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I유형은 그리스 신화를 부정한 경우인데, 이집트에서의 헤라클레스의 기행이 그에 속한다. II유형은 신화를 수정하여 수용한 경우인데, 에우로파 이야기, 트로이전쟁과 헬레나의 행방, 헤라클레스의 계보, 카드모스의 보이오티아 정착 이야기가 이에 속한다. III유형은 개인적인 판단을 표명하지 않고 단지 소개만 한 경우인데, 여기에는 이오 이야기, 아테나와 포세이돈의 경쟁 이야기, 디오니소스의 탄생과 양육 이야기, 에우로파를 찾는 카드모스의 항해 이야기가 속한다.

이들 사례 외에도 스키타이에서의 헤라클레스의 기행(奇行), 페르세우스의 계보, 페르세우스의 고르고 퇴치, 다나오스 딸들의 그리스 도피, 야손의 콜키스 모험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에 서술되어 있다.¹⁶⁾ 그러나 이것들은

대개 서술이 매우 단편적인데다 헤로도토스의 입장이 특별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외했음을 밝힌다.

그러면 우선 I유형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 사례를 통해 헤로도토스가 그 신화를 입수한 출처는 어디이고 그가 신화의 어떤 점을 부정했으며 또 그것을 부정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I유형의 사례는 이집트에서의 헤라클레스 기행(奇行) 이야기이다. 헤로도토스는 그리스인들의 입을 빌려, 헤라클레스의 이집트에서의 기행(奇行)을 소개한다. “그들(그리스인들)은 말하기를, 헤라클레스가 이집트에 오자 이집트인들이 그를 제우스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 영광(榮冠)을 씌우고 행렬을 지어 그를 이끌고 갔다고 한다. 그러자 그는 한동안 조용히 있었으나 그들이 제단 앞에서 그에 대한 제식을 시작하자 완강히 저항하여 그들을 모두 죽였다고 한다.”(2.45). 헤라클레스가 이집트에 가서 제물로 바쳐질 위기에 처했지만 이집트인들을 처치하고 무사히 위기를 벗어난다는 내용이다. 헤로도토스는 자신이 그리스인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나, 헤로도토스 이전에 그 이야기를 언급한 문헌은 현재로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헤로도토스가 그 이야기를 그리스인들에게서 들었다고 하고 또 그보다 약간 후대의 이소크라테스도 부시리스가 외국인들을 살해하다 헤라클레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전승을 언급¹⁷⁾하기 때문에, 그 기행(奇行) 이야기가 구전이든 문헌이든 간에 당시에 전래되었음이 분명하다. 헤로도토스 이후에는 그 이야기가 이집트왕 부시리스와 관계된 것으로 서술되곤 한다.¹⁸⁾

헤로도토스는 헤라클레스의 그 일화를 전적으로 부정한다. 그는 그렇지

16) 스키타이에서의 헤라클레스의 기행(奇行)(4.8-10), 페르세우스의 계보(6.53-54, 7.61, 7.150), 페르세우스의 고르고 퇴치(2.91), 다나오스 딸들의 그리스 도파(2.91, 2.98, 2.171, 2.182, 7.94), 아손의 쿨키스 모험(1.2-3, 4.179, 7.193).

17) 이소크라테스, 『부시리스』 5, 36. 『부시리스』는 기원전 390년경에 저술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8) 이소크라테스, 『부시리스』 5, 36-37; 아폴로도로스 2.5.11; 디오도로스, 4.18.1.

않아도 그리스인들이 ‘분별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터인데 그 일화도 ‘불명확한’ 것이라고 비난한다. 여기서 헤로도토스가 그리스인들의 이야기를 부인하는 근거로 든 것은 그리스인들이 이집트 관행에 대해 무지하다는 점과 이야기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점이다. 즉 이집트인들은 관행상 인간을 제물로 바치지 않는데도 그리스인들이 그것을 모르고 엉터리 이야기를 한다며 비판하고, 또 헤라클레스가 한낱 인간인데 혼자 힘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처치할 수는 없다고 반박한다. 그는 이집트에 대한 지식과 현실적 타당성을 근거로 헤라클레스 이야기가 허구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II유형은 에우로파 이야기, 트로이전쟁과 헬레나의 행방, 헤라클레스의 계보, 카드모스의 보이오티아 정착 이야기인데, 먼저 에우로파 이야기를 살펴보자. 헤로도토스는 『역사』 1.2에서 페르시아인들의 말을 빌려, 어떤 그리스인들이 페니키아의 티로스에 가서 왕의 딸인 에우로파를 강탈해 갔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페르시아인들은 그녀를 강탈한 그리스인들의 이름은 알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헤로도토스는 그들이 크레타인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이는 기존의 그리스 신화의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인다. 기존 신화에서는 제우스가 에우로파를 납치하여 크레타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미노스, 라다만토스, 사르페돈 형제들을 낳았다고 서술한다.¹⁹⁾ 그에 비해 헤로도토스는 에우로파 이야기에서 제우스의 존재를 전혀 거론하지 않는다. 그는 제우스가 아니라 그리스인들이 에우로파를 납치했다는 전승의 근거를 페르시아인들의 이야기에 두지만, 그들을 크레타인으로 추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헤로도토스는 다른 대목에서 에우로파와 그녀의 아들들이 크레타로 갔다고 언급함으로써, 그들과 크레타와의 연관성을 밝히고 있다. 그는 4.45에서 “명백한 것은 에우로파가 아시아 출신이

19) 호메로스, 『일리아스』 14.321-322; 헤시오도스, 『여인명부』 fr.19, *fr.*19A.1-15; 바킬리데스, 『디티람보스』 17.29-33, 52-57; Fragments, fr.10(D. A. Campbell, *Greek Lyric*, vol.4, Harvard Univ. Press, 1992); 아이스킬로스, Fragments, fr.50.1-19.

있고 현재 그리스인들이 에우로파라고 부르는 이 땅에는 오지도 않았으며 그저 페니키아에서 크레타로, 또 크레타에서 리키아로 이동했다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다른 대목에서도 에우로파와 그녀의 아들 미노스는 계속 크레타와 관련지어 논의된다.²⁰⁾ 그는 1.173에서 에우로파의 아들인 사르페돈이 크레타에서 리키아 지역으로 건너갔다고 서술한다. 그런데 그는 그 바로 앞의 1.171-172에서 리키아인들의 이웃인 카리아인과 카우니아인에 관해 서술하면서 각각 크레타인과 카리아인과 카우니아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그에 반해 1.173의 리키아인에 관한 대목에서는 리키아인들의 진술이 나오지 않고 대신 리키아인들의 이웃주민들의 진술이 등장한다. 그러면 리키아인들에 대한 서술은 그들의 이웃주민들인 카리아인과 카우니아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헤로도토스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그가 리키아인들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서술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어쨌든 여기에 등장한 리키아, 카리아, 카우니아인들은 모두 그리스인이 아니었다.²¹⁾ 헤로도토스는 아마 에우로파와 크레타의 연관성을 주장한 그들의 이야기를 근거로, 에우로파를 납치한 그리스인들이 크레타인일 거라는 추정을 했던 것이라고 보인다. 물론 그가 카리아인 등의 이야기에 의거하지 않고 다른 근거에 따라 납치자들을 크레타인으로 추정했을 수도 있다. 이미 당시 그리스에는 제우스가 에우로파를 크레타로 데려갔다는 전승이 유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헤로도토스가 그런 전승을 자신의 근거로 명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가 크레타인들을 에우로파 납치자로 추정한 데에는 카리아인 등의 이야기가 바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는 페르시아인, 리키아인 혹은 카리아인, 카우니아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인들의 신화를 수정한 셈이 된다.

II유형의 두 번째 사례는 트로이전쟁과 헬레나의 행방에 대한 서술이다. 우선 트로이전쟁의 경우, 헤로도토스는 그 전쟁에 대한 신화적 설명을 수

20) 1.173, 3.122, 7.169-171.

21) Cf. 1.171-1.173.

용하지 않는다. 기존의 신화적 설명의 구도는 세 여신의 미(美)의 심판, 알렉산드로스(혹은 파리스)의 아프로디테 선택, 알렉산드로스와 헬레나의 연애 및 도주, 그리스인의 연합원정, 신들의 개입과 트로이함락으로 이뤄진다.²²⁾ 그에 반해 헤로도토스는 트로이전쟁을 세속적인 사건으로 기술한다.

헤로도토스는 『역사』 1.3-5에서 페르시아인들의 말을 빌려, 헬레나와 트로이전쟁에 대해 서술한다. 그가 전하는 페르시아인들의 이야기는 기존의 신화적 설명과 차이를 보인다. 즉 세 여신의 심판이나 전쟁에 대한 신들의 개입이 언급되지 않는다. 또 헬레나의 트로이 항해는 ‘납치’(ἄρπαιή)라고 표현된다. 즉 헬레나가 알렉산드로스와 사랑의 도피행각을 벌인 것이 아니고 강제로 붙들려갔다고 보는 것이다. 전쟁의 원인도 ‘헬레나 납치’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그리스인들이 라케다이몬의 한 여자 때문에 대군을 소집하고 아시아로 진격하여 프리아모스의 군대를 격멸시켰다”는 것이다.²³⁾ 그런데 헤로도토스는 헬레나와 트로이전쟁에 대한 페르시아인들의 이야기를 전한 후, 그 이야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가타부타 밝히지 않는다. 또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아테네인들도 자신들이 헬레나의 납치에 대해 복수하고자 메넬라오스를 도왔다고 말했다 한다.²⁴⁾ 헤로도토스는 여기서도 아테네인들의 이야기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 트로이와 헬레나 이야기는 III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헤로도토스는 나중에 2.113-120에서 그 이야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낸다. 여기서 헤로도토스는 이집트사제들의 말을 빌려 서술한다. 그들에 따르면, 알렉산드로스가 헬레나를 납치하여 트로이로 항해하던

22)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트로이전쟁과 그 이후의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그 전쟁의 원인과 경과를 전해주는 대표적인 자료이다. 그 외의 자료로는 『키프리아』 fr.1; 에우리피데스, 『안드로마케』 275-292; 『트로이아데스』 919-933, 969-997; 『헬레나』 23-35;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 180-184, 573-589, 1284-1292, 1300-1310을 들 수 있다.

23) 헤로도토스, 『역사』 1.4.

24) 『역사』 5.94.

중에 강풍을 만나 이집트로 오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서도 알렉산드로스의 행위는 강압적인 탈취로 분명하게 묘사된다. 전쟁의 원인도 헬레나의 납치 때문인 것으로 언급된다. 그들에 의하면, “헬레나가 납치된 후 그리스인들의 대군이 메넬레오스를 도우려고 트로이인들의 땅으로 진군했다”²⁵⁾는 것이다. 트로이전쟁과 헬레나의 관계에 대한 이집트사제들의 이야기는 페르시아인들의 이야기와 똑같다. 하지만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인들의 진술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과 달리 이집트사제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동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집트사제들은 헬레나가 트로이에 가지 않고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지만 헬레나의 납치와 그로 인한 트로이전쟁의 촉발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한다. 그들은 트로이전쟁의 전체 이야기의 일부로서, 헬레나의 행방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헤로도토스는 트로이전쟁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다. 위에서 확인했듯이, 알렉산드로스의 스파르타방문과 헬레나의 가출, 그리고 헬레나를 되찾기 위한 트로이원정 이야기는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나 헤로도토스는 트로이전쟁의 신성한 요소를 배제하고 그 전쟁을 알렉산드로스와 헬레나의 세속사(世俗事)로 서술한다. 알렉산드로스와 헬레나의 관계를 상호간의 연애관계로 보지 않고 알렉산드로스의 헬레나 납치로 기술하기도 한다. 그가 트로이전쟁을 이렇게 서술한 근거는 무엇보다도 이집트사제들의 전승이다. 그가 페르시아인들의 말을 빌려 같은 이야기를 전하지만, 이집트사제들의 이야기에 대해서만 동조적인 입장을 표명한다. 그렇다면 그는 이집트사제들의 이야기를 듣고 트로이전쟁의 기존 신화를 수정한 셈이 된다.

다음으로 헤로도토스는 헬레나의 행방에 관해서도 언급하는데, 2.112-120에서 헬레나의 이집트체류 전승을 서술한다. 그는 헬레나가 알렉산드로스에게 납치되어 트로이로 가던 중에 강풍을 만나 이집트로 오게 되었고 트로이 전쟁 동안에도 프로테우스 왕의 보호를 받으며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한다. 이는 기존의 그리스 신화, 즉 알렉산드로스가 헬레나를

25) 『역사』 2.118.

데리고 트로이로 갔으며 그리스인과 트로이인들 간에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헬레나는 트로이에 머물러 있었다는 이야기를 부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이야기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등에 묘사되어 있다.²⁶⁾ 그러나 헤로도토스는 기존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부정한다. 사실 헬레나의 이집트 체류설은 헤로도토스 이전에 이미 스테시코로스(Stesichoros, 기원전 600-550년경)에 의해 개진되었다고 한다. 스테시코로스가 호메로스와 마찬가지로 헬레나의 트로이 체류를 언급하여 소경이 되었으나, 나중에 그것을 번복함으로써 시력을 회복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녀가 트로이에 가지 않고 사실은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으며 알렉산드로스가 트로이에 데려간 것은 그녀의 환영(幻影)이었다고 말했다 한다.²⁷⁾ 그러나 헤로도토스는 스테시코로스를 거론하지 않고 그녀의 이집트 체류 이야기를 이집트인들에게서 들었다고 밝힌다.²⁸⁾

여기서도 그리스 신화에 대한 그의 회의(懷疑)는 이집트인들의 이야기로부터 비롯된다. 그는 이집트인들, 즉 멤피스의 사제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사실인지를 그들에게 재확인했다. “내가 사제들에게 그리스인들이 과연 일리온에 관해 일어난 일을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보자, 그들은 자신들이 탐문하여 메넬라오스 본인으로부터 들어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2.118)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제들은 말하기를, 위에 언급한 일들의 일부는 자신들이 탐구하여 알게 된 것이지만 그들 자신의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들이 정확하게 알고 말한 것이라 했다(2.119). 이에 헤로도토스는 그들의 말을 신뢰하고 받아들인다. 그는 “이상은 이집트 사제들이 이야기해준 것이다. 그들이 헬레나에 대해 말한 이야기는 나 자신도 동

26) 호메로스, 『일리아스』 3.121-242; 사포, fr.16.6-12(D. A. Campbell, *Greek Lyric*, vol.1, Harvard Univ. Press., 2002).

27) 스테시코로스, Fragments, fr.190, 192, 193(D. A. Campbell, *Greek Lyric*, vol.3, Harvard Univ. Press, 2001). cf. 플라톤, 『파이드로스』 243A; 이소크라테스, 『헬레나』 64.

28) 2.113, 116, 120.

의한다.”(2.120)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헤로도토스는 이집트인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서 그 자신의 논거를 덧붙인다. 그가 제시한 근거들은 주로 호메로스 서사시 구절들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호메로스는 헬레나의 트로이 체류를 전제로 하여 이야기를 서술한다. 그러나 헤로도토스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2.116에서 말하기를, “나는 호메로스도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가 실제로 이용한 다른 이야기만큼 그렇게 서사시에 적합한 것이 아니어서, 호메로스는 일부러 그것을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이 그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한다. 그는 호메로스가 헬레나의 이집트 체류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일부러 작시(作詩)를 위해 그녀가 트로이에 있는 것처럼 서술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알렉산드로스 일행의 유량과 이집트 방문을 암시하는 호메로스 시구(詩句)들을 들어 자신의 근거로 제시한다. 여기서 그는 호메로스의 헬레나 이야기를 반박하기 위해 호메로스의 서사시 자체를 자신의 논거로 이용한다. 즉 호메로스가 묘사한 신화(헬레나 이야기)는 그가 부정하고 배제하는 대상이면서 또한 그의 논지를 강화하는 수단이기도 했던 것이다.

한편 헤로도토스는 헬레나의 트로이 체류설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는 2.120에서 주장하기를, 만일 헬레나가 트로이에 있었다면 프리아모스와 그의 친족들이 그들에게 닥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녀를 보호하고 고수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들은 그녀 때문에 자신들과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만큼 그렇게 실성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헤로도토스는 그런 일이 정상적인 인간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헤로도토스가 보기에, 헬레나가 트로이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헬레나는 당시 이집트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트로이에는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트로이인들은 돌려줄 헬레나를 갖고 있지 못해 부득불 불행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헤로도토스는 이집트인들의 이야기와 호메로스 구절을 인용하고 헬레나 트로

이 체류설의 비현실성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의 논거를 제시한다.

II유형의 세 번째 사례는 헤라클레스의 계보 이야기이다. 헤로도토스는 헤라클레스의 부모가 인간 암피트리온과 알크메네라고 말한다(2.43-44, 2.146, 6.53). 그런데 헤로도토스 이전의 많은 자료들은 헤라클레스를 제우스와 알크메네의 아들 혹은 인간 암피트리온과 알크메네의 아들로 묘사해 온 했다.²⁹⁾ 그러나 헤로도토스는 그가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는다. 사실 헤로도토스는 기본적으로 그리스인들이 말하는 헤라클레스 신화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는 이집트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기를, “나는 헤라클레스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데, 즉 그가 12신 중의 일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리스인들이 알고 있는 또 다른 헤라클레스에 관해서는 이집트 어디서도 아무 것도 들을 수가 없었다. 사실 나로서는 헤라클레스라는 이름을 이집트인이 그리스인들로부터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인이 이집트인들로부터 받아들였다는 것, 특히 그리스인들 중에서도 헤라클레스 이름을 암피트리온의 자식에게 붙여준 자들이 이집트인들로부터 이름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증명할 다른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다.”(2.43)고 한다. 여기서 12신이란 이집트의 12신을 가리킨다. 즉 그는 헤라클레스를 오랜 신으로 숭배하는 이집트인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서 반면에 그리스인들이 말하는 ‘또 다른 헤라클레스’에 대해서

29) 제우스의 아들(호메로스, 『일리아스』 14.250, 14.266, 14.323-324; 『오디세이아』 11.266-268, 11.620, 21.25-26, 21.36; 헤시오도스, 『신통기』 316-318, 943-944; 『방패』 52-53, 371, 424, 448; 핀다로스, 『올림피아 송가』 10.43; 『네메아 송가』 1.35-36; 『이스트미아 송가』 7.5-7; 바킬리데스, 『우승송가』 5.57-59, 79(D. A. Campbell, *Greek Lyric*, vol. 4); 소포클레스, 『트라키니아이』 19, 510-511, 644, 959; 『필로테테스』 943; 에우리피데스, 『알케스티스』 509; 『헤라클레이다이』 210; 『미친 헤라클레스』 826-829, 876, 1263-1264; 『이온』 191-192.). 암피트리온의 아들(호메로스, 『일리아스』 5.392; 『오디세이아』 11.270; 헤시오도스, 『신통기』 316-318; 『방패』 416, 433, 459; 핀다로스, 『올림피아 송가』 3.14; 바킬리데스, 『우승송가』 5.85; 『디티람보스』 no.16.15(D. A. Campbell, *Greek Lyric*, vol. 4); 에우리피데스, 『미친 헤라클레스』 1-3, 14, 353-354, 1192).

는 믿지 않는다. 그리스인들이 말하는 ‘또 다른 헤라클레스’란 신으로서의 헤라클레스가 아니고 반신적인 인간 영웅으로 묘사되는 헤라클레스를 가리킨다. 나아가 그는 그리스의 영웅 헤라클레스는 이집트의 신 헤라클레스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스인들이 암피트리온의 자식에게 헤라클레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헤라클레스의 부모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전승 중에서 그의 부모가 인간 암피트리온과 알크메네라는 이야기는 수용하되 그의 신성한 계보, 즉 그가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이집트인들의 이야기를 근거로 하여 그리스의 헤라클레스 신화를 수정하고 재해석하는 것이다.

그가 이처럼 헤라클레스 신화를 수정한 것은 이집트인들의 전승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는 헤라클레스와 디오니소스, 판에 대한 그리스인의 전승과 이집트인의 전승 중에서 이집트인의 것을 더 신뢰한다. 이집트인들이 말하는 헤라클레스, 디오니소스, 판은 그리스의 경우보다 시기적으로 훨씬 앞선 존재인데다가 이집트인들은 항상 연대(年代)를 계산하고 기록하기 때문에 햇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헤로도토스는 이집트인들의 주장을 더 신뢰하여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된다.³⁰⁾ 더욱이 헤라클레스에 대해서는 그 나름의 근거를 덧붙이고 있는데, 사실 그가 제시한 근거들 역시 이집트인들에게서 들은 바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³¹⁾

II유형의 네 번째 사례는 카드모스의 보이오티아 정착 이야기이다. 헤로도토스는 카드모스와 페니키아인들이 보이오티아에 와서 거주하게 되었다고 서술한다.³²⁾ 사실 카드모스의 보이오티아 정착에 대해서는 이미 호메로스 서사시에서도 암시된 바 있다. 호메로스는 ‘카드메이오이’(Καδμεῖοι)라는 말을 사용하는데³³⁾, 이는 ‘카드모스의 사람들, 카드모스의 일족’이라는 의미이며 테베주민들을 가리킨다. 카드메이오이가 테베주민들을 가리

30) 2.145-146.

31) 2.43.

32) 2.49, 5.57-58.

33) 『일리아스』 4.385, 4.388, 22.680; 『오디세이아』 11.275-276.

킨다는 것은 카드모스의 테베 정착 일화가 이미 호메로스 때에도 알려져 있었음을 뜻한다. 호메로스뿐 아니라 헤시오도스, 핀다로스, 아이스킬로스 등도 카드모스나 카드메이오이를 테베와 연관시켜 사용하곤 했다.³⁴⁾ 헤로도토스도 카드모스의 정착에 대한 기존의 전승을 수용한다. 그러나 헤로도토스는 그 전승이 당시 그리스인들에게 관례화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다. 헤로도토스는 카드모스가 그리스에 문물을 전래했다고 말하는데, 이는 그의 정착 이야기의 후속이자 그의 정착을 기정사실화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헤로도토스는 카드모스의 문물전래를 확인함으로써 그의 정착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헤로도토스는 카드모스와 페니키아인들이 그리스인들에게 많은 문물을 전해주었다고 주장한다. “내 생각에는 확실히 멜람푸스가 티로스의 카드모스 및 그와 함께 페니키아로부터 지금 보이오티아라고 불리는 지방에 도착했던 자들에게서 디오니소스에 대한 의식을 배웠을 것이라고 본다.”(2.49) “카드모스와 함께 온 이들 페니키아인들…은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리스인들에게 다른 많은 지식들뿐 아니라 특히 문자도 전래해 주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전에는 그리스인들에게 그것이 알려져 있지 않았다. 처음에 들어온 것은 모든 페니키아인들이 함께 쓰던 문자였다. 그러나 그 후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문자들의 소리와 형태에 변화를 주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그들의 주변에 살고 있던 그리스인들은 대부분 이오니아인들이었다. 이들은 페니키아인들로부터 문자를 배워 받아들이고 그 문자들의 형태를 조금 변경하여 사용했다. 이들은 그 문자들을 사용하면서 그것들을 페니키아 문자라고 명명해 불렀다. 페니키아인들이 그 문자들을 그리스에 도입했던 것이므로 그 이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5.58). 그런데 헤로도토스 이전의 자료에서는 카드모스의 문물전래 이야기에 대한 언급이 확인되지 않는다. 헤로도토

34) 헤시오도스, 『일과 날들』 162; 『신통기』 326; 『방패』 13; 핀다로스, 『이스트미아송가』 1.11; 『네메이아송가』 8.51; 아이스킬로스, 『테베를 향한 7인』 39, 302-303;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 티라노스』 144;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736; 에우리피데스, 『미친 헤라클레스』 10, 1389; 『포이니사이』 5-6, 216, 638-639, 1227, 1239.

스가 현존 자료에서는 처음으로 카드모스의 문물전래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 신화에 대한 보완이자 수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헤로도토스는 무엇을 근거로 문물전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가? 헤로도토스가 카드모스의 문물전래의 구체적인 사례로 지정한 것은 디오니소스 제의와 페니키아 문자이다. 이 중 카드모스가 디오니소스 제의를 전래했다는 이야기는 이집트인들의 말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집트인들의 전승을 근거로 하여, 그리스의 많은 신과 제식들이 이집트에서 전래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헤로도토스는 페니키아인들이 이집트의 문물을 그리스에 전래했다는 또 다른 일화를 전하고 있기도 하다. 즉 그는 이집트인들의 말을 빌려, 페니키아인들이 이집트 테베의 여사제들을 그리스로 데려가 도도나 신탁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이다.³⁵⁾ 한편 헤로도토스는 카드모스의 페니키아 문자 전래에 대해 자신의 목격을 근거로 제시한다. 그는 자신이 보이오티아의 테베에 있는 아폴론 성소 안에서 카드모스 문자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들이 대체로 이오니아인들의 문자와 같았다는 것이다.³⁶⁾ 이처럼 그는 이집트인들의 말과 자신의 목격을 근거로 카드모스의 문물전래 이야기를 받아들였고, 그로써 카드모스의 보이오티아 정착 이야기를 수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끝으로 III유형에 속하는 사례는 이오 이야기, 아테나와 포세이돈의 경쟁 이야기, 디오니소스의 탄생과 양육 이야기, 에우로파를 찾기 위한 카드모스의 항해 이야기이다. 먼저 이오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헤로도토스는 1.1-5에서 페르시아인들의 말을 통해, 아르고스의 왕인 이나코스의 딸 이오가 페니키아 상인들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전한다. 반면 페니키아인들은 그들이 이오를 강탈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의 선장과 동침하여 임신하게 된 이오가 부모에게 창피하여 자발적으로 그들을 따라나섰다고 말한다. 헤로

35) 2.54.

36) 5.59.

도토스는 이오가 이집트로 가게 된 경위를 설명한 페르시아인들의 이야기를 전한 후에, 그것과 그리스인들의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한다(1.2). 그러나 그는 페르시아인 이야기와는 다른 그리스인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만 언급할 뿐, 그 내용을 따로 기술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아마 제우스와 이오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전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헤로도토스 이전의 그리스신화에 의하면, 아르고스의 이나코스의 딸 이오가 제우스의 연인이 되었고 그 때문에 헤라의 미움과 박해를 받아 암소로 변해 이집트로 쫓겨 갔다고 한다.³⁷⁾ 헤로도토스는 그리스인들이 말한 이나코스의 딸 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³⁸⁾ 특히 2.41에 보면 그가 이오 이야기를 알고 있었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그는 2.41에서 그리스인들이 이오의 형상을 소뿔이 달린 여성의 모습으로 묘사한다고 말하는데, 이오의 그런 형상묘사는 제우스와 이오에 대한 기존 신화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헤로도토스는 이오 이야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지 않고 그가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는 『역사』의 서두에서 이오, 에우로파, 헬레나 이야기를 적은 후에 그것들에 대한 자신의 논평을 일단 유보한다. 그는 1.5에서 “이상의 이야기는 페르시아인들과 페니키아인들이 말한 것이다. 하지만 나로서는 그 일들에 관해 그것들이 이렇게 혹은 저렇게 일어났다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이후 대목에서 에우로파와 헬레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명하지만, 이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하지 않는다. 이오의 형상에 관한 언급(2.41)에서도 그는 자신의 견해를 따로 개진하지 않는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헤로도토스가 그리스인들의 이야기는 전하지 않고 페르시아인과 페니키아인 같은 외국

37) 바킬리데스, 『디티람보스』 19.15-45(D. A. Campbell, *Greek Lyric*, vol.4); 아이스킬로스, 『히케티데스』 15-18, 40-48, 291-315, 531-589; 『뉘인 프로메테우스』 561-569, 588, 600-601, 640-686, 703-741, 786-815, 842-876, 877-886, 898-900; 에우리피데스, 『포이니사이』 676-678.

38) 1.1-2.

인들의 이야기를 주로 전한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그가 그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수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일단 이 사례를 III유형으로 분류한다.

III유형의 두 번째 이야기는 아테나와 포세이돈의 경쟁 이야기이다. 헤로도토스는 8.55에서 두 신들의 경쟁일화를 언급한다. “이 아크로폴리스에는 땅에서 태어난 존재라고 불리는 에렉테우스의 신전이 있는데, 그 안에는 올리브나무와 바닷물 웅덩이가 있다. 그것들은, 아테네인들의 이야기로는, 포세이돈과 아테나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다투었을 때 그들이 증거로 제시한 것들이라고 한다.” 헤로도토스 이전의 현존 자료에서 아테나와 포세이돈의 경쟁 이야기를 서술한 대목은 확인되지 않는다. 헤로도토스에게서 처음으로 그 이야기가 언급되는 것이다.³⁹⁾ 그러나 헤로도토스는 자신이 그 이야기를 아테네인들에게서 들었다고 밝히기 때문에, 헤로도토스 이전에도 그 이야기가 전해졌음이 분명하다. 이는 헤로도토스 이전에 아테네가 ‘아테나의 국가(혹은 도시)’로 불렸다⁴⁰⁾는 점에서도 어느 정도 입증된다. 아테네가 ‘아테나의 국가(혹은 도시)’로 불렸다는 것은 아테나가 아테네의 수호신임이 천명된 것이고, 이는 아테나가 수호신이 되는 과정, 즉 아테나와 포세이돈의 경쟁 신화를 암시하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아테나와 포세이돈의 경쟁 신화에 대한 헤로도토스 이전의 비교자료가 없기 때문에, 헤로도토스 진술의 위상을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헤로도토스가 그에 대한 아테네인들의 이야기를 전달만 하고 특별히 개인적인 견해를 표명하지 않기 때문에, III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III유형의 세 번째 이야기는 디오니소스의 탄생과 양육 이야기이다. 디오

39) 에우리피데스, 『트로이아테스』 801-802에서 아테나의 기적을 언급하지만, 이 작품은 기원전 415년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헤로도토스의 서술이 시기상 가장 이른 것이라 할 수 있다.

40) 아이스킬로스, 『페르시아』 347; 『에우메니데스』 79, 772, 1072; 에우리피데스, 『메테이아』 771.

니소스의 특별한 탄생과 양육에 대한 이야기는 헤로도토스 이전부터 전하고 있었다. 즉 디오니소스의 어머니 세멜레가 제우스의 천둥번개에 놀라 죽자,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의 몸속에 넣어 꿰매어졌고 후에는 니사에서 양육되었다고 한다.⁴¹⁾ 헤로도토스가 전하는 디오니소스의 탄생/양육 일화도 기존의 전승과 유사하다. “그리스인들의 말에 의하면, 제우스는 디오니소스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를 자신의 넓적다리에 꿰매어 넣고 이집트 너머에 있는 에티오피아의 니사로 데려갔다고 한다.”는 것이다(2.146). 이 구절은 그가 디오니소스, 판, 헤라클레스에 대한 그리스인과 이집트인들의 전승을 비교 서술하는 과정(2.145-146)에서 언급된다. 그에 따르면, 그리스인들은 그 신들을 신들 중에서 가장 연소한 신으로 보지만, 이집트인들은 ‘판’을 최초의 8신들 중의 일원으로 보고 또 ‘헤라클레스’를 2대 신들 중의 일원, ‘디오니소스’를 가장 늦은 3대 신들 중의 일원으로 본다고 한다. 헤로도토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디오니소스의 시기에 대한 양 지역의 전승을 비교하는데, 이집트인들은 ‘디오니소스’와 아마시스 왕 사이에 15,000년의 기간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반면 그리스의 디오니소스(세멜레의 아들)와 헤로도토스 자신의 시대 사이에는 1600년의 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리스의 전승에 대해서는 근거를 밝히지 않지만, 이집트인의 전승에 관해서는 이집트인들이 연대(年代) 계산과 기록을 통해 위에 언급한 해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말을 덧붙인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를, “누구든 이 두 가지 전승 중에서 자신이 더 믿을만하다고 여기는 것을 따르면 될 것이다. 그에 관한 내 견해는 이미 밝힌 바 있다. 내가 보기에는 그리스인들이 이들의 이름을 다른 신들의 이름보다 더 나중에 알게 되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들에 대해 알게 된 시점을 그들의 탄생 시기로 소급시키는 것이다”라고 기술한다. 즉 헤로도토스는 그리스인들의 디오니소스 신앙이 이집트의 선구적 문물인 ‘디오니소스’의 이

41) 알카이오스, fr.381; 핀다로스, 『올림피아송가』 2.25-26; 소포클레스, 『안티고네』 1139(이상, 탄생); 호메로스, 『일리아스』 6.132-133(양육).

름과 제식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⁴²⁾ 여기서 그는 자신의 주장(그리스인들이 디오니소스의 이름을 다른 신들의 이름보다 더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보는 주장)의 바로 앞 대목에서 그 주장의 근거로서 디오니소스의 탄생일화를 언급한다. 그는 디오니소스의 탄생 일화를 끌어내어 자신의 논지 전개를 위한 근거로서 활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는 디오니소스의 탄생 일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사실 헤로도토스는 여기서 그리스인의 말을 빌려 제우스와 디오니소스의 부자관계를 간단히 언급할 뿐이고, 다른 곳에서는 그들의 관계를 전혀 거론하지 않는다. 더욱이 그가 디오니소스 탄생 일화를 단 한 번만 거론하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헤로도토스의 입장을 명확하게 규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헤로도토스가 그리스인들의 입을 빌려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자신의 논평 없이 타인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례로 분류한다.

III유형의 또 다른 사례는 에우로파를 찾기 위한 카드모스의 항해 이야기이다. 헤로도토스는 카드모스가 에우로파를 찾아 나섰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그는 카드모스가 왜 에우로파를 찾아 나섰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지만, 둘을 모두 티로스인으로 적고 있다.⁴³⁾ 또 에우로파는 티로스의 왕의 딸이고 카드모스는 아게노르(Agenor)의 아들이라고 적고 있다. 그런데 호메로스는 에우로파를 포이닉스(Phoinox)의 딸이라고 하고⁴⁴⁾ 카드모스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다. 더욱이 호메로스 이후 헤로도토스까지의 문헌들에서는 카드모스와 에우로파의 관계를 명시하거나 카드모스가 에우로파를 찾아 항해했다는 언급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헤로도토스는 무엇을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가? 에우로파를 티로스의 왕녀라고 말한 것은 페르시아인들이었다. 반면에 그가 카드모스를 아게노르의 아들이라고 기술하게 된 근거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헤로도토스는

42) Cf.2.49, 2.52.

43) 1.2, 2.49.

44) 『일리아스』 14.321.

2.44와 4.147에서 카드모스가 에우로파를 찾아 항해했다고 언급한다. 그는 2.44에서 자신이 페니키아와 타소스를 직접 방문했음을 밝힌 후에 카드모스와 에우로파 이야기를 거론하기 때문에, 그가 그 이야기를 그 두 곳 중 어딘가에서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그가 티로스의 사제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하고 또 그 사제들의 이야기도 인용하기 때문에, 그가 페니키아인들에게서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카드모스와 에우로파의 신상(身上)에 대한 그의 언급은 이방인들인 페르시아인과 페니키아인들의 전승에 기초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는 카드모스의 항해 이야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 현재의 자료여건상 그런 언급이 그 이전에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신화를 보완 수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없으므로 III유형으로 분류한다.

IV. 결론

헤로도토스는 그리스 신화를 허구적인 가공물로 간주한다. 그리스 신들은 대개 이집트 신들의 이름을 받아들여 개별화된 것이고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와 같은 시인들이 신들의 계보와 기능, 형상을 창작하여 신화를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 신화를 신뢰하지 않았고, 『역사』에서 그리스 신화를 중요한 소재로 다루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역사서술에는 그리스 신화가 끼어들기도 한다. 그것은 여담을 위한 소재가 되기도 하고 그의 논거를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헤로도토스는 기존의 신화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신화의 내용을 부정하기도 하고 그 내용을 수정하여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지 않은 채 그냥 이야기를 소개하기만 한다.

헤로도토스는 신화를 부정할 때 자신의 판단근거를 밝힌다. 그가 기존의 신화를 부정한 경우는 이집트에서의 헤라클레스의 기행(奇行) 이야기인

데, 그는 이집트에 대한 지식 및 인간행위의 현실적 타당성을 근거로 제시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또한 그리스 신화를 수정할 때에도, 자신의 판단근거를 밝히거나 주장의 출처를 제시한다. 에우로파 이야기는 그리스인들이 아닌 이방인들(페르시아인, 카리아인 등)의 말에 근거하여 수정한 것이고, 트로이전쟁과 헬레나의 행방 이야기는 이집트인들의 말과 호메로스의 구절, 그리고 인간행위의 현실적 타당성, 헤라클레스의 계보 이야기는 이집트인들의 말, 카드모스의 보이오티아 정착 이야기는 이집트인들의 말과 자신의 목격을 근거로 수정한다. 여기서 헤로도토스는 대개 외국에서의 견문과 인간행위의 현실적 타당성을 근거로 하여 그리스신화를 부정하거나 수정한다. 특히 그는 이집트인의 말을 크게 신뢰한다. 그는 이집트인들을 “인간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2.160)이라고 표현하며 그들이 인간의 여러 가지 문물을 처음으로 창시했다고 본다.⁴⁵⁾ 더욱이 헤로도토스는 그리스의 많은 문물들이 이집트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⁴⁶⁾ 그가 이집트인들의 말을 신뢰한 것은 이집트문화의 우수성과 선구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⁴⁷⁾ 또한 그는 인간사회에서의 현실적인 타당성을 근거로 제시하는데, 이는 그가 인간행위를 세속적인 인과관계에 의해 설명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헤로도토스는 자신이 언급한 그리스 신화에 대해 아무런 논평 없이 이야기만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이오 이야기, 아테나와 포세이돈의 경쟁 이야기, 디오니소스의 탄생과 양육 이야기, 에우로파를 찾기 위한 카드모스의 향해 이야기가 그런 경우이다. 이는 아마 그가 그 신화들에 대해 진지하게 논평할 의지가 없었거나 혹은 그것들에 대한 논평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탓이 아닌가 한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헤로도토스는 탈신화화한 역사를 기술하고자 노력했

45) 2.4, 58, 82.

46) 2.43, 49, 50, 55, 58, 145, 160, 171, 177, 4.180.

47) 김봉철, “헤로도토스의 『역사』의 사료비판 사례”, 『서양고전학연구』 9(1995), pp. 42-

45 참조

다. 그는 그리스 신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인들 사이에 전해지던 신화에 대해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며 부정하기도 하고 또 수정하여 바로잡기도 한다. 또 일부 신화에 대해서는 자신의 판단을 유보하고 그냥 이야기를 소개하기만 한다. 이런 그의 다양한 입장은 언뜻 보기에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태도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그리스신화 언급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그가 기존의 신화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재해석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이다. 자신의 풍부한 전문지식이나 현실적 타당성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화를 부정 혹은 수정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지 않고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곤 했던 것이다

- 투고일자 : 2012. 8. 19
- 심사완료일 : 2012. 9. 17
- 게재확정일자 : 2012. 9. 18

〈국문초록〉

헤로도토스의 역사서술과 그리스 신화

김 봉 철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는 흔히 역사를 신화에서 해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그리스 신화를 허구적인 가공물로 간주한다.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와 같은 초기 시인들이 신들의 계보와 기능, 형상을 창작하여 신화를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 신화를 신뢰하지 않았고 『역사』에서 그리스 신화를 중요한 소재로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헤로도토스의 『역사』에서 그리스 신화가 전연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가끔 여담을 위한 소재나 논지전개상의 근거로 신화를 활용하곤 했던 것이다. 이처럼 그는 한편으로 신화를 배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신화를 활용하기 때문에, 역사와 신화에 대한 그의 입장이 애매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므로 헤로도토스가 언급한 신화들을 사례별로 고찰하여, 그의 역사서술과 신화와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헤로도토스의 신화서술에서 어느 정도 신화의 이야기 구도를 갖춘, 9개의 유의미한 사례들을 추출하여 설명한다. 그 사례들은 이오 이야기, 에우로파 이야기, 포세이돈과 아테나의 아테네 수호신 경쟁 이야기, 디오니소스의 탄생과 양육 일화, 헤라클레스의 계보 이야기, 이집트에서의 헤라클레스 기행(奇行) 이야기, 트로이전쟁과 헬레나의 행방 이야기, 에우로파를 찾기 위한 카드모스 향해 이야기, 카드모스의 보이오티아 정착 이야기이다. 이들에 대해 헤로도토스는 신화의 내용을 부정하기도 하고(이집

트에서의 헤라클레스 기행(奇行)), 그 내용을 수정하여 받아들이기도 하고 (에우로파 이야기, 트로이전쟁과 헬레나의 행방, 헤라클레스의 계보, 카드모스의 보이오티아 정착), 또 때로는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지 않은 채 그냥 이야기를 소개하기만 한다(이오 이야기, 아테나와 포세이돈의 경쟁, 디오니소스의 탄생과 양육, 에우로파를 찾기 위한 카드모스의 항해). 이 다양한 대응 속에서도 헤로도토스는 신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능한 한 탈신화화한 역사를 기술하고자 한다. 그는 기존의 그리스 신화에서 신적인 요소들을 배제했으며, 신화를 부정하거나 수정할 경우 나름의 근거를 제시한다. 그는 자신의 풍부한 견문지식이나 현실적 타당성을 근거로 하여, 신화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것이다. 그가 특히 신뢰한 것은 이집트인들의 전승이었다. 하지만 그는 판단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신화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유보하고 그냥 이야기를 전달하기만 한다. 그의 이런 다양한 입장은 언뜻 보기에 이중적인 태도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그리스신화 서술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은 그가 기존의 신화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비판적인 재해석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주제어(Key Words)

1. 헤로도토스(Herodotos)
2. 그리스 신화(Greek Myth)
3. 역사와 신화(History and Myth)
4. 헬레나(Helena)
5. 헤라클레스(Herakles)

〈Abstract〉

Herodotos' Historiography and Greek Myth

Kim, Bong-Cheol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uses of Greek myth in Herodotos' *Historiai* and explain his attitude toward myth. Herodotos, the so-called father of history, usually has been appraised as liberating history from myth. In *Historiai*, however, Greek and foreign myths are often told, so some historians don't agree with the aforesaid appraisal of Herodotos. This article intends to suggest some solutions to the controversy over Herodotos, by surveying Greek myth examples mentioned in *Historiai*.

When Herodotos mentions Greek myths, he denies them, or accepts them with some modifications, or just narrates them without showing his opinions of them. In this article myths denied are grouped in type I, myths accepted with some modifications in type II, myths narrated without showing his opinions in type III. I pick out nine examples where stories of Greek mythical events are somewhat sufficiently told: (1) Herakles' queer behaviors in Egypt, (2) Europa's journey, (3) the Trojan War and Helena's whereabouts, (4) Herakles' genealogy, (5) Kadmos' settlement in Boiotia, (6) Io's journey, (7) the competition between Athena and Poseidon for Athens, (8) the birth and rearing of Dionysos, (9) Kadmos' voyage searching for Europa. Among these, example (1) is grouped in type I, while examples (2), (3), (4), and

(5) are grouped in type II, examples (6), (7), (8), and (9) are grouped in type III.

Herodotos doesn't accept Greek myths uncritically. If he has some reliable grounds for judging of Greek myths, sometimes he denies and sometimes modifies them (as in type I and II). On the other hand if he doesn't have them, he never expresses his own opinions of myths and just narrates them as they are told (as in type III). Through analyses of above nine examples, I conclude that Herodotos generally tries to criticize Greek myths as far as possible. That is why he has been called as the father of history and appraised as liberating history from myth. Also, he appears to prefer especially to Eypatian sources in judging Greek myth. Denying or modifying Greek myth, he often relies on Egyptian traditions.

〈참고문헌〉

- 김경현, “헤로도토스를 위한 변명”, 『서양고전학연구』 24(2005), pp. 265-302.
- 김봉철, “헤로도토스의 『역사』의 사료비판 사례”, 『서양고전학연구』 9(1995), pp. 1-53.
- 김봉철, “헤로도토스와 그리스 신화서술: 제우스 서술을 중심으로”, 『서양고대사연구』 27(2010), pp. 247-280.
- 오홍식, “고대 그리스의 헤라클레스 영웅숭배”, 『서양고대사연구』 24(2009), pp. 131-166.
- D. Asheri 외, *A Commentary on Herodotus Books I-IV*, Oxford, 2007.
- D. A. Campbell, *Greek Lyric*, 5 vols., Harvard Univ. Press, 1982-1993.
- C. Dewald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Herodotus*, Cambridge, 2006.
- J. M. Edmonds, *The Greek Bucolic Poets*, Harvard Univ. Press, 1928.
- J. M. Edmonds, *Elegy and Iambus with the Anacreontea*, Harvard Univ. Press, 1931.
- H. G. Evelyn-White, *Hesiod*, Harvard Univ. Press, 1914.
- D. Fehling (J. G. Howie 영역), *Herodotus and His ‘Sources’: Citation, Invention and Narrative Art*, Leeds, 1989.
- A. D. Godley, *Herodotus*, 4 vols., Harvard Univ. Press, 1922-1938.
- T. Harrison, *Divinity and History. The Religion of Herodotus*, Oxford, 2000.
- W. W. How & J. Wells, *A Commentary on Herodotus*, 2 vols. Oxford, 1912.
- R. Lattimore, “Herodotus and the Names of Egyptian Gods”, *Classical Philology*, 34.4(1939), pp. 357-365.
- I. M. Linforth, “Greek Gods and Foreign Gods in Herodotus”, *Univ. of California Pub. in Class. Phil.*, 9(1926), pp. 1-25.

- I. M. Linforth, "Greek and Egyptian Gods", *Classical Philology*, 35.3(1940), pp. 300-301.
- J. E. Powell, *A Lexicon to Herodotus*, 2판, London, 1938.
- A. E. Wardman, "Myth in Greek Historiography", *Historia* 9(1960), pp. 403-413.
- R. D. Woodard, *The Cambridge Companion to Greek Mythology*, Cambridge, 2007.